그때 그 사건을 아시나요?

본고는 1960년대 이후 양계업이 태동하면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양계업계의 발전과 함께 벌어졌던 각종 사건들을 월간양계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모아 본 내용이다.

– 편집자주 –

서울시 주택가에 가축사육 금지령

1974년 양계산업의 발전속도가 빨라지고 사육수수가 늘면서 서울시에서는 주변환경이 불결해져 전염병의 온상이 되기 쉽다는 이유로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10km 이내에서는 절대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도시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양계산업도 지방으로 옮겨가는 전기를 마련하였다.(1974년 10월호)

연탄파동 심각

최근에는 농장에서 거의 사용이 없는 연탄이 1970년에는 많은 농가에서 연료로 사용하였다. 1974년 겨울에는 연탄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육추에 필요한 연탄의 부족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양계협회와 농림부(당시 농림수산부)는 상공부에 긴급조치를 의뢰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그해 8월 정부에서는 연탄구매카드제를 마련하고 사업용 연탄을 황색카드로 표시,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무제한 공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런 조치로 연탄공급이 호전되면서 병아리 주문양이 늘어나 과잉생산이 초래되기도 하였다.(1974년 1월호)

이색광고, 이런 사람을 조심합시다.

1978년 12월 28일 양계협회에 다음과 같은 진정이 들어왔다. 산란계 수컷을 품질 좋은 육계라고 하며, 경기도 소사, 일산, 판교, 성남 등지에 비싼 가격을 팔고 다녀 가뜩이나 병아리 구하기 힘든 양계인들을 골탕먹이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 인상착의를 월간양계에서 상세히 소개하여 양계인들에게 주의를 알린 적이 있다. 당시 게재된 인상착의는 ①163cm정도의 키에 뚱뚱한 편이고, ②경상도 말씨에 중고 오토바이를 타며, ③잠바차림에 검정바지를 입었고, ④말을 잘 하는 3,40대의 중년이고, ⑤얼굴이 다소 검다라고 적혀있으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양계풍토를 흐리고 있다니 정말 섭섭합니다' 라고 말을 맺고 있다.(1978년 1월호)